




# IV

## 정시전형의 이해와 대비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해와 활용
  2. 2022 대입 정시전형의 주요 특징과  
준비전략
- 



## IV 정시전형의 이해와 대비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해와 활용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은 현재 고3 학생들이 입학한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고, 대입 3년 예고제에 의해 이미 2017년에 연구 용역과 개편 시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여러 논란 끝에 개편이 1년 유예되어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즉, 현재 2학년 학생들이야말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개편된 수능이 함께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선택과 평가 방법 : 교육부는 지난 2019년 8월 13일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구분하여 수능에서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문·이과 구분의 폐지로 탐구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사탐·과탐 구분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상대평가로 시행되었던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변경되었다.

#### 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변경 사항 Ⅰ

영역	응시 과목 선택 방법 / 평가 방법
국어, 수학	'공통+선택'구조에 따라 공통과목과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상대평가) *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택 1,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탐구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 사회·과탐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응시(상대평가)
제2외국어/한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등급만 표기)

- 2022 수능 선택 과목과 출제범위의 변화 : 2022 대입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국어, 수학의 일부가 선택과목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 수학은 수학 I, II를 각각 공통과목으로 두고 있으며, 총 문항 중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 내외로 출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상태이다. 탐구 과목의 경우 계열에 상관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과목 편중이 심했던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 조정되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과 비교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Ⅱ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의 변화 Ⅱ

과목 (영역)	출제범위	
	2021학년도 대입 수능	2022학년도 대입 수능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언어와 매체(언어만 출제)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가형 :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빠짐) 나형 : 수학, 수학II, 확률과 통계 (지수로그함수추가)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 : 수학 I, 수학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 I, 영어 II (절대평가)	변화없음
한국사	한국사 (절대평가)	변화없음
탐구	사회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사회 : 9과목 *과학 : 8과목(과학 I·II) <b>17과목 중 최대 택 2</b>
	과학	1과목 선택: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양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위 5개 과목 중 택 1 + 성공적인 직업 생활
	직업계 : 직업계열 중 택2 *직업 :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씩)	
제2외국어/한문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중 1과목 선택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b>9과목 중 택 1(절대평가)</b>

- 2022 수능의 과목 선택과 대학의 과목 지정 : 2022 수능부터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국어와 수학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1학년도까지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과 과탐, 인문계열은 수학 나형과 사탐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해 온 대학 입장에서도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선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부딪히게 되었다. 학생마다 각각 자신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인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단위나 의예과 등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수학 과목을 지정하였고,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 진로 진학 희망 분야에 대한 고민과 대비 : 과목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도 학생들은 원칙적으로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탐구에서 사회 두 과목, 혹은 사회 과학 각각 한 과목씩 응시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연계열로 진학해 수학하려는 학생이라면 대학에서 제시한 수능 지정과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학마다 수능에서 응시해야 하는 과목 선택의 기준선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 2학년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나 학과에 대한 고민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의 과목 선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능의 과목 선택으로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2022 수능 과목 지정의 효과 : 인문계열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대학 지원에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연계열이나 의학계열은 대학에 따라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하고, 탐구도 과학 탐구 2과목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21 이전의 수능 체제인 수학(가)+과탐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2022 대입 대학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과목 ■

\* 대교협 발표자료 2020. 4. 30. 기준

영역	계열	지정여부	지정과목	대학
수학	자연	지정	수도권	가천대(의예과, 약학과), 가톨릭대(약학과, 간호학과(자연), 의예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경기), 덕성여대(약학과), 동국대, 동덕여대(약학과),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미적분/기하 중 택1	강원대(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 경북대, 경상대(약학과), 계명대(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공주대(수학교육과), 단국대(충남/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자연)), 대구가톨릭대(약학부, 의예과), 대구한의대(한의, 의예과), 동국대(경주/의예과), 동아대(의예과), 동의대(한의예과), 목포대(수학교육과), 부산대, 상지대(한의예과), 서원대(수학교육과), 순천대(약학과, 수학교육과), 연세대(미래/의예과), 영남대(의예과, 약학부), 울산대(의예과), 원광대(약학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인제대(약학과, 의예과),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수의예과, 의예과, 약학과, 수학교육과), 조선대(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차의과학대(약학과), 충남대(수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수학교육과), 충북대(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의예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한국교원대(수학교육과), 한림대(의예과)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한의예과(인문)), 동의대(한의예과), 인제대(약학과)
탐구	자연	지정	수도권	가천대(의예과, 약학과), 가톨릭대(약학과, 간호학과(자연), 의예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약학과), 동국대, 동덕여대(약학과),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과탐 2과목	강릉원주대(치의예과), 강원대, 건양대(의학과), 경북대, 경상대(수의예과, 의예과), 경상대(약학과), 계명대(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고신대(의예과), 단국대(충남/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대구가톨릭대(약학부, 의예과), 대구한의대(한의예과), 동국대(경주/의예과), 동아대(의예과), 부산대, 상지대(한의예과), 순천대(약학과), 영남대(의예과, 약학부), 우석대(약학과), 울산대(의예과), 원광대(약학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의예과), 을지대(대전/의예과), 인제대(약학과, 의예과), 인천대, 전남대(약학부, 의예과, 치의학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수의예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전북대, 제주대(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수의예과, 의예과, 약학과), 조선대(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차의과학대(바이오공학과, 약학과, 의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의예과)
			서로 다른 과탐 2과목	서울대(한 과목 이상 2과목 선택)

- 수능 영역별 문항 수, 배점, 시간 : 영역 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등은 기존 방식에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이 공통+선택의 구조로 시행되므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안내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Ⅱ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문항수, 배점, 시간 Ⅱ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점, 3점	100점	80분
수학		30	5지선다형, 단답형	2점, 3점, 4점	100점	100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점, 3점	100점	70분
한국사(필수)		20	5지선다형	2점, 3점	50점	30분
탐구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점, 3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점, 3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점, 3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제2외국어 /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점, 2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 다. 성적표의 이해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이해: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성적)은 학기말/학년말 성적통지표나 학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9등급을 사용하고, 5단계의 성취도를 표기한다.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등급을 표기하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만 표기한다.

Ⅲ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산출 표기 방법 Ⅲ

구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	○	5단계	○	○
	일반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	○	○	○	○
		체육예술	-	-	-	-	-
	진로선택과목		○	○	-	○	-
	교양 교과(군)		-	-	-	-	P

- 학력평가 성적표의 이해 : 시도단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 성적표의 경우, 영역별 원점수와 문항별 정오표/난이도, 등급, 각 영역의 출제 분야별 전국 평균 점수, 과목 조합별 백분위 등이 표기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성적 등급)은 재학 중인 단위 학교 내에서만 산출되는 반면,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등급은 전국 단위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졸업생을 제외한 전국 재학생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오표와 함께 문항별 난이도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틀린 문항의 난이도를 확인하면 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역별로 제공되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도 의미있는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표에서 등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세부 문항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등급의 경우 구간별 백분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분위 값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3등급은 누적비율 23%~40%에 해당하는데, 같은 3등급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석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백분위는 전체 학생 100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하면, 학력평가 성적표를 통해 원점수, 문항별 난이도,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를 확인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 등급과 백분위를 통해 재학생 집단 내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함으로써 진학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의 형태 : 6월, 9월 모의평가나 수능 성적표는 학생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에서 안내한 2022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예시)는 다음과 같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연도)		
12345678	홍길동		03.09.05	남	한국고등학교(9)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독일어 I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분위		93	95		75	93	
등 급	2	2	2	1	4	2	2

2021. 12.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표준점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서 표준점수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험생의 원점수를 전체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점수이다. 응시영역/과목별 응시자 중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 성취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산출한 성적지표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2022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 점수를 이용하여 선택과목점수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산출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갖는 평균과 표준편차 값에 의해 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단순히 예단할 수 없으며, 집단 내 학생들 사이에서 위치에 따라 점수가 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Ⅱ 과목별 표준점수 산출식 Ⅱ

과목	산출식	
국어, 수학	공통과목	$100 +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20$
	선택과목	$\frac{\text{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text{공통과목 표준편차}} +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frac{\text{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표준편차}}{\text{공통과목 표준편차}}$
탐구	$\frac{\text{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10 + 50$	

- 탐구영역 과목선택과 표준점수 차이 : 탐구영역의 경우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표준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Ⅲ 탐구영역 표준점수 산출 예시 Ⅲ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탐구A	40	30	10	60
탐구B	35	20	10	65

- 탐구A의 경우 원점수는 40점이지만 표준점수를 계산하면 60점이다. 반면에 탐구B의 원점수는 35점이지만 표준점수는 65점이다. 각 과목별 평균을 보면 탐구A가 30점, 탐구B가 20점으로 탐구B가 더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탐구B가 더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원점수가 낮아도 표준점수는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러한 선택과목으로 생기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분위를 활용한 대학별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백분위 값마다 보정 점수를 지정하고 과목별 백분위 값이 같다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백분위 :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정수(0~100)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시집단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표준 점수에 비해 동점자수가 많아지게 된다. 백분위는 다음 산출식으로 계산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만을 표시한다.

■ 백분위 산출식 ■

산출식	
$\text{백분위} = \frac{(\text{수험생 표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수}) + (\text{동점자 수}) \div 2}{\text{해당 과목의 수험생 수}} \times 100$	

- 등급 : 등급은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별(탐구영역은 과목별)로 부여한다. 상대 평가로 시행되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수능 등급은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수능 9등급제의 등급별 누적비율은 교과 성적 9등급제의 누적비율과 동일하다.

■ 등급별 비율과 누적비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별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영어, 제2외국어, 한국사의 등급구분 원점수 :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의 경우 원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표준점수, 백분위는 표기되지 않는다. 2022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등급만 성적표에 표시될 예정이다.

■ 절대평가과목의 등급구분 원점수 ■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구분 원점수	영어	90	80	70	60	50	40	30	20	0
	제2외국어	45	40	35	30	25	20	15	10	0
	한국사	40	35	30	25	20	15	10	5	0

- 성적 통지표에는 학생 개인 정보와 함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학력평가 성적표와 달리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로 등급은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되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정시전형에서 대학별 환산점수를 산출하는 활용지표로 활용된다. 다음은 2020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과 나형의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추정)를 정리한 자료이다.

Ⅱ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간 상관관계 Ⅱ

수학(가)				수학(나)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원점수 (추정)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원점수 (추정)
134	1	100	100	149	1	100	100
133	1	99	98	147	1	100	98
132	1	99	97	146	1	100	97
131	1	99	96	145	1	100	95
130	1	98	95	144	1	99	94
129	1	98	94	143	1	99	93
128	1	96	92	142	1	99	92
127	2	94	91	141	1	99	91
126	2	94	90	140	1	99	90
125	2	92	89	139	1	98	89
124	2	89	88	138	1	98	88
123	2	89	87	137	1	97	86
122	2	88	85	136	1	97	85
121	3	85	83	135	1	96	84
120	3	83	82	134	2	95	83
119	3	82	80	133	2	95	82

원점수가 높더라도 동점자 수, 점수별 누적인원 분포에 따라 백분위나 등급 분포가 달라진다. 수학(가)의 경우, 표준점수 133점, 132점, 131점의 백분위는 99로 동점이다. 누적인원이 작아 백분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33점인 학생은 백분위보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131점인 학생은 표준점수보다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학(나)는 원점수 84점부터 100점까지 모두 1등급에 해당하며, 백분위는 96에서 100까지 분포한다. 원점수의 차이는 16점이지만 백분위 차이는 4이며, 표준점수 차이는 14이다. 즉, 수능 성적표에서는 표준점수의 변별력이 가장 높고, 백분위, 등급 순으로 변별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급보다는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살펴보아야 한다.

## 2 2022 대입 정시전형의 주요 특징과 준비전략

### 가. 정시 모집 일정과 특징

구 분		시행일 (2022학년도)	2021학년도(원안)	2021학년도 (코로나19로 수정)
수능 시험일		2021. 11. 18.(목) (11월 3째주 목요일)	2020. 11. 19.(목)	12. 3.(목)
수능 성적 발표일		2021. 12. 10.(금) (수능 후 21일 후)	2020. 12. 09.(수)	12. 23.(수)
학생부 작성 기준일		11. 30.(화) 기준	2020. 11. 30.(월)	12. 14.(월)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중 3일 이상 (12월 말)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1. 7.(목) ~ 11.(월) 중 3일 이상
	합격자 발표	2022. 2. 8.(화)까지 (2월 초 최초합격자 발표(※ 대학별 상이함))	2021. 2. 1.(월)까지	2. 7.(일)까지
	합격자 등록	2022. 2. 9.(수) ~ 11.(금) (합격자 발표 직후 3일 이내)	2021. 2. 2.(화) ~ 4.(목)	2. 8.(화) ~ 10.(목)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2. 2. 20.(일)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2월 중순 (추가모집 발표 직전전일))	2021. 2. 16.(화)	2. 17.(수)

#### ■ 정시모집 수험생 유의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대, 전문대학교 포함)의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2.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하는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교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 동일 모집기간 군(가/나/다)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3.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 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한다.
4. ‘대학(산업대학 및 교대, 전문대학교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5.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한다.

## 나.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

### Ⅰ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Ⅰ

(단위: 명)

대입	수시	정시	정시 증감	합계
2022학년도	262,378(75.7%)	84,175(24.3%)	4,102	346,553(-894명)
2021학년도	267,374(77.0%)	80,073(23.0%)	983	347,447(-419명)
2020학년도	268,776(77.3%)	79,090(22.7%)	-3,882	347,866(-968명)

### Ⅱ 전형유형별 대학 입학 정원 Ⅱ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48,506(42.9%)	146,924(42.3%)
	학생부위주(종합)	79,503(22.9%)	86,083(24.8%)
	논술위주	11,069(3.2%)	11,162(3.2%)
	실기/실적위주	18,817(5.4%)	18,821(5.4%)
	기타	4,483(1.3%)	4,384(1.3%)
소계		262,378(75.7%)	267,374(77.0%)
정시	수능위주	75,978(21.9%)	70,771(20.4%)
	실기/실적위주	7,470(2.2%)	8,356(2.4%)
	학생부위주(교과)	201(0.1%)	270(0.1%)
	학생부위주(종합)	347(0.1%)	424(0.1%)
	기타(재외국민)	179(0.1%)	252(0.1%)
소계		84,175(24.3%)	80,073(23.0%)
합계		346,553(100%)	347,447(100%)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인원 대비 비율

- 2022 대입 정시 모집 인원 소폭 증가 : 2022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에 비하여 894명 감소한 346,553명을 선발한다. 한편,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인원은 4,102명 증가한 84,175명을 선발하고 2021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인 23.0%에서 1.3%p 증가한 24.3%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소폭 증가 추세이다.
- 2022 대입 정시 수능위주 선발 :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인원 84,175명 중 75,978명(88.4%)을 대학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실기시험과 실적위주의 예체능 계열 선발 인원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정시 전형이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 2018년 8월 발표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과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정시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와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상향 조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6천5백여명 감소(주요 15개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 43.8%(2021)→35.1%(2022))

하면서 정시모집과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이 소폭 늘어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인원이 늘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 40%에 가까워졌다. 한편, 지방 소재 대학은 정시 비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 평균을 24.3%로 낮추는 결과를 보여줬다.(수도권 소재 대학은 32.3%, 지방 소재 대학은 15.7%다.)

## 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2022학년도 이후 정시모집 예측

### Ⅰ 학령인구 감소와 대입 정시 모집인원 변화 Ⅰ

(단위: 명)

학년	대입시기	재학생 수	재학생 수 변화	정시모집인원	정시 증감
현 고3(02년생)	2021학년도	445,479	-56,137	80,073	983
현 고2(03년생)	2022학년도	463,932	18,453	84,175	4,102
현 고1(04년생)	2023학년도	448,125	-15,807		
현 중3(05년생)	2024학년도	415,189	-32,936		

※ 자료: 2019 교육통계 학년별 학생수 자료,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Ⅱ 학력평가 응시인원 Ⅱ

(단위: 명)

시기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현 고3)		2022학년도(현 고2)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전년도 11월	454,509	403,726	351,783	359,613 (고1)	370,349	미 실시 (중3)
3월	456,250	398,603	미 실시 (코로나19)	252,133 미 실시: 경기, 광주	미 실시 (코로나19)	262,005 미 실시: 경기, 광주
6월	520,740 (454,505+66,235)	466,138 (397,354+68,784)		300,968 미 실시: 서울		315,734 미 실시: 서울
9월	513,896 (437,874+76,022)	455,949 (377,496+78,453)		260,262 미 실시: 경기		272,581 미 실시: 경기
수능	530,220 (399,910+130,310)	484,737 (347,765+136,972)				

※ ( )는 재학생+재수생을 나타냄.

- 학령인구의 감소 : 2021학년도에 약 5.6만명 가량 감소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1.8만여명의 학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23학년도부터 계속해서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고2가 적용되는 2022학년도의 경우 수험생 수가 1.8만여명이 증가, 정시모집 인원도 비슷하게 증가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듯 싶지만 정시모집인원 증가 추세에 맞춰 수험생들이 수능위주의 정시모집에 더욱 결집하면서 2021학년도 경쟁률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교육당국은 인위적인 대학정원 감축없이 입학 정원의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2020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감소뿐만 아니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도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2021학년도에도 경쟁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수능응시인원은 늘고 정시모집 인원도 늘면서 2021학년도와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 발표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현 고3은 2019년 11월 학평에 전년대비 51,943명 감소한 351,783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것은 2021학년도 정시모집인원이 983명 증가한 반면에 수험생은 감소하면서 정시 경쟁률이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현재 고2가 응시할 2022학년도의 경우 응시인원은 전년도 11월 학평 대비 현재 고3 보다 18,566명 증가했다. 정시모집인원 또한 4,102명의 증가(4.5배)로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 4.6:1(상위 15개대 평균 경쟁률 5.3:1)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와 정시모집 인원을 늘렸다는 측면에서 일부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선회할 수 있게 2022학년도의 정시모집 경쟁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라. 정시모집 선발인원

- 고교 2학년이 적용받는 2022학년도 4년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2020년 4월 30일에 발표되었다. 이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산점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다. 고3이 되는 5월과 9월에 각각 발표되는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요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단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은 예외로 대교협이 승인하에 변경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시모집과 정시 비율 등 각 대학별 전형별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입시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전형계획안에 따른 주요 15개대 정시선발 비율은 다음과 같다.

Ⅱ 서울소재 주요대학 2022학년도 정시선발 비율 및 선발 인원(예체능 포함, 정원 외 전형 제외) Ⅱ

대학	2022학년도 (현 고2)		2021학년도 (현 고3)		증감	
	선발비율(%)	선발인원(명)	선발비율(%)	선발인원(명)	비율(%)	인원(명)
건국대	45.0	1,359	39.4	1,191	5.6	168
경희대	42.3	2,014	32.7	1,548	9.6	466
고려대	37.4	1,421	19.9	756	17.5	665

대학	2022학년도 (현 고2)		2021학년도 (현 고3)		증감	
	선발비율(%)	선발인원(명)	선발비율(%)	선발인원(명)	비율(%)	인원(명)
동국대	39.9	1,080	30.1	814	9.8	266
서강대	37.5	594	30.1	477	7.4	117
서울대	30.3	979	23.2	736	7.1	243
서울시립대	46.1	786	37.5	641	8.6	145
성균관대	42.4	1,418	31.6	1,110	10.8	308
숙명여대	42.9	908	32.2	683	10.7	225
연세대	43.6	1,504	35.6	1,220	8.0	284
이화여대	32.8	1,013	31.4	952	1.4	61
중앙대	33.0	1,456	28.3	1,230	4.7	226
한국외대	39.6	664	33.2	568	6.4	96
한양대	42.9	1,208	31.1	876	11.8	332
홍익대	36.3	861	41.4	983	-5.1	-122
계		17,265		13,785		3,480

● 2022학년도에는 홍익대를 제외하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 모두 정시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주요 15개 대학 중 정원내 전형의 모집인원에서 정시 선발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은 고려대로 2021학년도에 비해 17.5% 증가한 37.4%(정원내 전형)를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 15개 대학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정시모집에서 3,480명을 증가시켜 선발하고 있다. 특히, 홍익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시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정시비율이 40%가 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입제도공정성 강화방안'의 대입제도 구조개편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해야만 하는 권고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 16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한편, 지원자는 정시모집의 경우 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수시전형에 비하여 지원가능범위가 제한되어 있기에 정시모집인원이 늘었다고 무작정 정시를 준비하기보다는 학력평가를 근거로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고민하고 대학별 변화를 고려하여 정시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Ⅱ 서울소재 주요대학 2022학년도 정시선발 전형별/군별 모집인원(예체능 포함, 정원 외 전형 제외) Ⅱ

대학	수능(일반전형)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건국대	517	718	124						
경희대	717	1,064		163	70				
고려대	1,421								
동국대	564	513					3		
서강대		594							



대학	수능(일반전형)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서울대		979							
서울시립대	76	653		57					
성균관대	711	707							
숙명여대	756	21		30	101				
연세대	1,384			120					
이화여대	184	707			122				
중앙대	464	407	427	51	107				
한국외대	211	391	62						
한양대	855	257			96				
홍익대		81	776		4				
계	7,860	7,092	1,389	421	500	-	3	-	-

## 마. 주요대학 수시이월인원

- ‘수시이월인원’이란 대학이 수시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수만큼의 학생을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수의 학생을 정시모집 인원내 포함시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말한다. 대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이월인원을 고려한 대학의 최종 정시 선발 인원을 확인 후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Ⅱ 서울소재 주요대학 3개년 수시이월인원 - 일반전형 Ⅱ

대학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대학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서울대	175	217	175	경희대	52	39	91
연세대	242	267	297	한국외대	0	42	46
고려대	216	239	190	서울시립대	97	97	93
서강대	56	68	94	건국대	22	20	94
성균관대	63	69	184	동국대	49	71	62
한양대	25	12	32	홍익대	97	76	57
이화여대	99	74	96	숙명여대	25	77	60
중앙대	63	40	98	계	1,281	1,186	1,685

- 2020학년도 수시이월인원을 분석해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의 경우는 소폭 감소지만,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은 소폭 늘었다.
- 기존 정시모집 요강에는 모집하지 않았던 학과가 수시 이월로 인해 정시에서 모집하는 모집단위가 나타날 수 있다. 2020학년도 서울대의 경우 자유전공학부와 치의예과는 수시로만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이월인원 발생으로 인해 정시모집에서 자유전공학부는 3명, 치의예과는 2명을 새로 모집했다. 이처럼 각 대학은 정시 원서접수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시이월인원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원서접수 시작 2~3일 전에 발표되는 수시이월인원을 살펴봐야 되며, 모집인원의 변동은 경쟁률과도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할 필수요소이다.

■ 2020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이월인원 상위 모집단위 ■

서울대	모집단위	재료공학부	기계공학	지구환경과학부	간호대학	산림과학부	수의예과
	최초인원	22	29	0	10	9	0
	이월인원	10	9	9	9	8	8
	최종인원	32	38	9	19	17	8
연세대	모집단위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과학	경영학	수학	화공생명공학
	최초인원	39	65	20	111	11	25
	이월인원	27	20	17	14	14	13
	최종인원	66	85	37	125	25	38
고려대	모집단위	의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화공생명공학	가정교육	컴퓨터학
	최초인원	15	19	17	7	9	13
	이월인원	23	18	17	15	9	8
	최종인원	38	37	34	22	18	21

- 수시이월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대학 및 학과의 모집 정원이 증가하면서 경쟁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문계열에서는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시이월인원이 자연계열에 비하여 좀 더 적게 발생한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서울대와 중복합격하는 학생이 많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이월인원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서울대에 합격하더라도 지방의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수시이월인원이 많이 발생한다. 한편, 인문계열에서는 경영경제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자연계열에서는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화공생명공학 관련 모집단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 바. 정시모집 주요대학 군별 경쟁률

- 정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경쟁률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경쟁률은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흔히 입시제도의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의 변화, 모집인원의 변화, 군의 이동변화, 수시이월인원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요소로 인해 경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모집인원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원자수가 많기 때문에 내 점수의 상대적 경쟁력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률이 높으면 추가 합격이 계속되어도 합격선이 낮아

지지 않는다. 참고로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만 확인하지 말고 모집단위별 경쟁률의 변화 추이와 경쟁률의 변화요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한편, 지원자들은 최근 몇 개년 경쟁률을 참고하여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수험생들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고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Ⅱ 서울소재 주요대학 2020학년도, 2019학년도 경쟁률 Ⅱ (예체능 제외)

대학	2020학년도						2019학년도					
	가		나		다		가		나		다	
	경쟁률	모집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서울대	3.40	859명					3.58	901명				
연세대			4.60	1,378명					5.01	1,278명		
고려대			4.37	886명					4.39	851명		
<b>총 누적</b>	<b>3.40</b>	<b>859명</b>	<b>4.50</b>	<b>2,264명</b>			<b>3.58</b>	<b>901명</b>	<b>4.76</b>	<b>2,129명</b>		
서강대	4.74	529명					5.98	388명				
성균관대	5.46	579명	3.67	612명			5.97	366명	4.45	413명		
한양대	7.39	305명	3.74	587명			7.90	290명	3.87	574명		
이화여대	3.83	620명					3.86	506명				
<b>누적</b>	<b>5.06</b>	<b>2,033명</b>	<b>3.70</b>	<b>1,199명</b>			<b>5.65</b>	<b>1,550명</b>	<b>4.11</b>	<b>987명</b>		
<b>총 누적</b>	<b>4.57</b>	<b>2,892명</b>	<b>4.23</b>	<b>3,463명</b>			<b>4.89</b>	<b>2,451명</b>	<b>4.56</b>	<b>3,116명</b>		
중앙대	4.17	233명	4.45	315명	20.14	383명	5.2	212명	5.01	303명	21.97	328명
경희대	5.01	587명	3.77	712명			5.82	564명	5.09	579명		
한국외대	5.49	190명	4.31	370명			6.75	171명	4.54	361명		
서울시립대	4.60	679명	10.72	53명			4.68	674명	7.56	36명		
<b>누적</b>	<b>4.79</b>	<b>1,689명</b>	<b>4.31</b>	<b>1,450명</b>	<b>20.14</b>	<b>383명</b>	<b>5.36</b>	<b>1,621명</b>	<b>4.98</b>	<b>1,279명</b>	<b>21.97</b>	<b>328명</b>
<b>총 누적</b>	<b>4.65</b>	<b>4,581명</b>	<b>4.25</b>	<b>4,913명</b>	<b>20.14</b>	<b>383명</b>	<b>5.08</b>	<b>4,072명</b>	<b>4.68</b>	<b>4,395명</b>	<b>21.97</b>	<b>328명</b>
건국대	6.09	503명	6.22	591명	14.97	119명	6.67	547명	6.65	509명	15.16	135명
동국대	5.58	495명	4.48	396명			5.92	606명	5.35	288명		
홍익대					10.31	868명					9.83	885명
숙명여대			3.91	538명					4.39	606명		
<b>누적</b>	<b>5.84</b>	<b>998명</b>	<b>4.95</b>	<b>1,525명</b>	<b>10.87</b>	<b>987명</b>	<b>6.27</b>	<b>1,153명</b>	<b>5.41</b>	<b>1,403명</b>	<b>10.54</b>	<b>1,020명</b>
<b>총 누적</b>	<b>4.86</b>	<b>5,579명</b>	<b>4.42</b>	<b>6,438명</b>	<b>13.46</b>	<b>1,370명</b>	<b>5.34</b>	<b>5,225명</b>	<b>4.86</b>	<b>5,798명</b>	<b>13.32</b>	<b>1,348명</b>

- 군별로 경쟁률을 분석해보면 비슷한 점수대에서 수험생들의 지원성향이나 학과 선호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020학년도의 주요 15개 대학의 경쟁률은 정시 모집인원이 소폭 상승했지만, 수험생의 감소로 인해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가군의 경우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가군에서 354명 늘었지만, 지원자는 775명이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다른 군에 비해 하락폭이 컸다. 반면, 나군의 모집인원은 640명이 늘어났지만, 지원자 역시 277명 증가하면서 하락폭을 줄

였다. 다군의 모집인원은 22명 늘어난 반면에 지원자는 487명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의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나 홍익대를 제외한 중앙대, 건국대의 경쟁률은 모두 하락했다.

- 2022학년도에는 ‘대입제도공정성 강화방안’에 의해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를 제외하고 40%에 가까울 만큼의 정시모집인원을 늘려 전년대비 3,480명을 더 선발하지만 늘어난 수험생과 상위권 대학 결집현상으로 경쟁률이 크게 감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정시모집에서는 군 내 복수지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군 이동에 따라 연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여 선발하면서 주요대학의 모집군 변동이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였고, 서강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화여대는 가/나군으로 이동하는 등 대학마다 변화가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모집단위의 군별 변화가 없기에 상위권 수험생은 정시 모집군에 따른 정시 지형 변화 및 모집단위별 선발군의 이동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 사. 전형 요소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활용지표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로 선발한다.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에도 대부분 대학의 정시 모집은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100%를 활용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대다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이외의 요소로는 학생부,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이 있으나 특정 모집단위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 주요대학 2022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 인문/자연 ■

구분	100%	90%	80%
가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나군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을지대(학생부10)-일반1 광주교대(면접10)-2단계 광주교대(면접10)-2단계	공주대(면접20) 진주교대(면접20)-2단계 부산교대(면접20)-2단계
다군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홍익대		

- 교대나 사범대의 경우 면접시험·구술고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주로 교직 적·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고려대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적·인성 면접시험(결격 판단용)을 활용하는 등 의학 및 간호계열을 중심으로 적·인성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의 경우는 실기시험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계열의 경우 전형 방법 간소화와 정시 실기시험비중 대학의 증가로 비실기전형을 폐지하고 실기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 한편 체육계열에서는 수능 성적에 의해 대학의 수준이 결정되고 실기시험능력의 완성도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실기시험을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있고,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 활용지표 및 반영비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국어, 수학, 탐구의 경우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의 세 가지 지표가 표기되고, 영어와 한국사 및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실시로 등급만 제공한다. 대학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데, 평택대, 경동대의 경우처럼 등급만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활용하여 선발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표준점수를 활용, 탐구역역은 백분위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여 선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정시전형의 중심 평가요소인 수능성적은 대학별로 상이한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라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영어와 한국사 등 특정 영역의 가감점 등을 반영하면 더욱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Ⅱ 2022학년도 영역별 반영비율 - 인문계열 Ⅱ

대학	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타
			미적분	기하	확통		사	과	
서울대	표준점수 활용	33.3	40			감점	26.7		
연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3.3	33.3			16.7	16.7		
고려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7	35.7			감점	28.6		
서강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6.7	43.3			가산	20		
성균관대	표준점수+변환표점	40	40			가산	20		
한양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30(40)			10	30(20)		
이화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25			20	25		
중앙대	표준점수+변환표점	40	40			가산	20		
경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25)	25(35)			15	20		한국사5%
한국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30			20	20		
서울시립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30(35)			25	15(10)		
건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25)	25(30)			15	25		한국사5%
동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25			20	20		한국사5%
홍익대	표준점수	30	30			15	25		
숙명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30)	25(30)			20	20		

※ 괄호( ) : 한양대(상경), 경희대(사회), 서울시립대(경제, 세무, 경영), 건국대(인문Ⅱ), 숙명여대(경상)

Ⅱ 2022학년도 영역별 반영비율 - 자연계열 Ⅱ

대학	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타
			미적분	기하	확통		사	과	
서울대	표준점수 활용	33.3	40			감점		26.7	
연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2.22	33.33			11.11		33.33	
고려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1.25	37.5			감점		31.25	
서강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6.7	43.3			가산		20	
성균관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40			가산		35	
한양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			10		35	과탐Ⅱ3%
이화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30			20		25	
중앙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40			가산		35	
경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			15		25	한국사5%
서울시립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0(•)			20		30	
건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30)			15		25(30)	한국사5%
동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30(•)			20		20	한국사5%
홍익대	표준점수	20	35			15		30	
숙명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15/20/35)	35 (50/50/25)			20		20 (15/10/20)	

※ 괄호( ) : 건국대(자연Ⅱ), 숙명여대(수학과/통계학과/의류학과)

※ 서울시립대(건축학부(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동국대(바이오시스템대학)은 수학 지정과목 없음.

※ 숙명여대 : 통계학과 의류학과는 수학 및 탐구 지정 없음.

### 3) 영어 반영방법

-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는 등급만 제공된다. 대학에서는 영어등급을 활용한 자체 등급별점수를 부여하여 활용한다.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등급별 점수에 가중치 또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법(비율반영),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가산점, 감산점), 영역별 점수에 최고점을 나누어 가중치 또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법, 서울교대처럼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Ⅲ 2022학년도 영어영역 반영방법 및 등급별 점수 Ⅲ

대학명	반영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서울대	감점	0	-0.5	-2	-4	-6	-8	-10	-12	-14
연세대	비율반영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고려대	감점	0	-3	-6	-9	-12	-15	-18	-21	-24
서강대	가산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성균관대	가산	100	97	92	86	75	64	58	53	50
한양대	인문	비율반영	100	96	90	82	72	60	46	30
	자연		100	98	94	88	80	70	58	44
이화여대	비율반영	100	98	94	88	84	80	76	72	68



대학명	반영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중앙대	가산	100	98	95	92	86	75	64	58	50
경희대	비율반영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한국외대	인문	비율반영	140	138	134	128	120	110	90	60
	자연		105	104.5	103.5	102	100	97.5	94.5	90
서울시립대	비율반영	250	248	244	240	236	232	228	224	0
건국대	인문	비율반영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자연		200	198	196	193	188	183	180	170
동국대	비율반영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홍익대	비율반영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숙명여대	비율반영	100	95	85	75	65	55	45	35	25

- 영어 반영방법 및 등급별 점수의 차이는 정시 지원패턴을 결정할 수 있는데, 등급 간 점수차가 클 수록 자신에게 유리리를 고려한 지원전략을 세우게 된다. 대표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있는 연세대와 달리 고려대는 등급 간 점수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대가 2021 대비 등급 간 점수차를 늘려 영어영역의 영향력을 소폭 높이면서 영어영역 성적에 따른 유리리 상위권 대학 지원의 희비가 있었던 경향을 다소 완화했다.

■ 2020, 2021학년도 영어반영 방법에 따라 유리리가 달라지는 경우 예시 ■

구분	국어 (표준점수)	수학(나) (표준점수)	영어 (등급)	사회탐구		한국사 (등급)	국수탐 총점
				탐구1	탐구2		
정보원	138	135	1	65(생윤)	67(경제)	1	405
홍길동	138	135	2	65(생윤)	72(경제)	1	410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등급)	사회탐구		한국사	대학별 환산점수	
				탐구	탐구수		정보원	홍길동
연세대 인문	33.3	33.3	16.7	16.7	2	가산	740.39	733.41
고려대 인문	35.7	35.7	감점	25.6	2	가산	684.04	685.39(2020학년도) 683.38(2021학년도)

## 사. 정시모집 대비전략

- 수시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별고사나 면접시험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와 병행하면서 정시를 준비하고 있다. 수능이나 학력평가에 나온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실전처럼 교과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병행할 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능 성적이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합격부터 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거나, 학과보다는 대학선호도가 우선시 되어 지원하는 경우 입



학 후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정시모집에서 수시모집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시 준비와 함께 자신의 장래 목표, 적성, 가치관, 흥미, 부모님의 기대 등을 가장 먼저 파악 후 정시모집에서도 지원전공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정시모집에서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이 적은 모집단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단위 선발인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인문계열에서도 인문, 사회, 경상대학에 따라,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과학, 공학, 보건계열에 따라 수능 반영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전공에 따라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에 맞추어 학습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정시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점수는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표준점수나 백분위의 총점이 아닌 대학별 환산점수로 이를 고려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정시모집은 수능 난이도와 선택과목간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상위권 학생일수록 실패하는 영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학력평가를 통해 정시지원가능 대학 범위를 고려한 수시 및 정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 탐구영역 선택은 학교에서 교과 성적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별 응시인원 및 혹시 모를 수시지원 시 면접 시험준비를 위한 교과선택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한국사영역에서 의외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많은 대학들이 4등급 또는 5등급 정도만 되면 감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하도록 한다.

